

보물 제513호 철불좌상의 수리·복원

정광용·이영범*·곽홍인**

대전보건대학 디지털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 보존과학실

**국립진주박물관 보존과학실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eated Iron Buddha (Treasure No. 513)

Kwang-Yong Chung, Yeong-Bum Yi* and Hong-In Gwak**

Dept. of Digital Museology,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Conservation Science Lab., Jeonju National Museum*

***Conservation Science Lab., Jinju National Museum*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영천 선원동 보물 제513호 鐵佛坐像에 대한 수리·복원은 불교 조각원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 불상은 비교적 완전한 편이지만 양손과 우측무릎 및 목 부분은 缺失되었고 땀질한 흔적 이외에는 완전한 형태의 철불좌상이다. 높직한 肉鵝에 중앙 계주가 뚜렷한 나발의 머리모양, 얼굴면적에 비해 눈 꼬리가 올라간 긴 눈, 작은 코와 입, 짧고 융기된 인중을 나타낸 굳은 얼굴표정은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본 불상에 대한 조사 당시의 상태는 결실된 오른팔과 왼손은 나무로 제작하여 접합되었고, 우측 무릎과 일부 결손된 부분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매워져 있었다. 또한 목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은 청동 주물판을 이용하여 땀질된 상태였으며, 불상 전체가 銅粉을 이용하여 改金된 상태였다. 철불좌상의 수리·복원은 과학사, 불교조각사, 보존과학분야의 문화재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하였다.

손실된 양손의 수리·복원처리는 정밀 도면을 작성한 후 점토로 기형을 제작하여 밀납주형 틀을 만든 다음 주철 용탕을 부어 완성하였다. 완성된 수인은 불상의 본체 내부에 木材 芯을 박아 고정시킨 후 복원처리 하였다.

무릎은 에폭시계 수지를 이용하여 복원하였으며, 특히 목 부분에 靑銅鑄物로 땀질된 일부 부분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거하였다. 개금된 동분은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 시킴에 따라 본래의 철불 구조당시 아름다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하였다. 특히 보존처리시 전통적인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불상의 부식상태가 양호하고 구조 당시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를 이용한 표면처리는 하지 않았다.

사찰 문화재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보존관리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